

사십절의 감추어진 역사 - 숫자 이십사

에스겔 번호 오

Jeff Pippenger

2026-08-10

우리가 이제 여러 편의 글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증언집』 제5권의 그 구절에서, 우리는 에스겔과 이사야와 요한에게 주어진 성전의 이상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굳게 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당신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두려운 심판들을 열거하시며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더욱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에 적용된다.”

아브월 구일

히브리어로 “아브월 9일”을 뜻하는 티샤 베아브(Tisha B'Av)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제1성전이, 그리고 서기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일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날이다. 이 두 파괴는 모두 동일한 달력 날짜, 곧 히브리력 아브월 9일(보통 그레고리력으로 7월이나 8월에 해당함)에 일어났다. 화잇 자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에 연결시킬 때, 그녀는 둘 다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을 예시하는 두 멸망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11장 16절은 그 일요일 법령을 나타내며, 41절과 일치한다.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요일 법령 시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분리되는 일을 예증하는 데 사용된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중,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로 그 분리를 보도록 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초닷셋날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거기에서 주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임하셨다. 그때에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로는 불이 있었고 그의 허리 모양 위로는 광채의 모양이 있어 호박빛 같았다. 그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털 한 가닥을 잡으시매,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으니, 곧 북쪽을 향한 안뜰 문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였다. 에스겔 8:1-3.

8장에서 11장까지의 네 장은 분리에 대한 묘사이며, 화잇 자매는 에스겔 9장을 주해하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치심과 동일한 것임을 밝힐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들의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표상한다고 밝힌다.

자신의 영적 퇴보를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애통해하지도 아니하는 부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질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든 당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신다.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늙은 사람들에게서 시작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백성의 영적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장로들은 그 맑은 바 신임을 배반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옛날과 같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나타나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그들의 불신을 더욱 굳게 하며, 그들은 말한다. 주께서는 복을 내리시지도 아니하시고 화를 내리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도 자비로우시므로 자기 백성을 심판으로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기 위하여 나팔같이 소리를 높이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외침이 나온다. 짓지 아니하는 이 병어리 개들이야말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을 받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멸망한다.”

“신실한 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가증한 일들은 유한한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으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훨씬 더 중대한 죄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있었다. 마음을 철저히 살피시는 크신 분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은밀히 범하는 모든 죄를 아신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만 가운데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며, 마치 그분께서 땅을 버리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밝혀내실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감추어 온 그 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것이다.”

“지위의 우월함이나, 존엄이나, 세속적 지해도, 성직의 어떤 자리도, 사람이 자신의 기만적인 마음에 내버려질 때 그로 하여금 원칙을 희생하는 일을 막아 주지 못한다. 존귀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던 자들이 배도의 주동자들로 드러나며, 무관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일에 본보기가 됨이 판명된다. 그들의 악한 행로를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며, 진노 가운데 자비 없이 그들을 다루신다.

“큰 빛의 축복을 받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서 주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은 마지못한 일이다. 그들은 한때 그분의 충성된 종들이었고,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특권을 누렸으나, 그분에게서 떠나 다른 이들을 오류로 이끌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Testimonies, volume 5, 211, 212.

에스겔서 전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에스겔의 증언에서는 일 년 반 동안 지속된 느부갓네살의 포위가 특별히 표지되어 있으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신 예수님의 경고의 “보다 직접적인 적용”은 말일에 있다. 에스겔서에서 그 진리의 계열은 24장에서 발견된다.

주전 588년 1월 15일

또 아홉째 해, 열째 달, 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곧 바로 이 날이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였느니라. 에스겔 24:1, 2.

이 날짜에는, 다른 성경적 증언들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바와 같이, 열여덟 달에 걸친 포위가 시작되었다. 그 날짜에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큰 불이 뒤따르는 끓는 가마솥으로 묘사된 피 흘린 성읍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비유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며, 같은 장에서 이어서 에스겔의 아내가 재앙으로 죽어 장사되게 되는 일이 상징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마침내 성소를 멸망시키게 될 그 포위가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의 재앙으로 네 눈의 기쁨을 네게서 빼앗아 가리라.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네 머리에 두르는 것을 머리에 매고 네 발에 신을 신으며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위로의 떡도 먹지 말라.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고, 나는 아침에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노라. 에스겔 24:15-18.

그때 에스겔 주위에 있던 백성이 그 비유와 그의 아내의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힘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끼는 것인 내 성소를 더럽히겠고, 너희가 남겨 둔 너희 자녀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4:19-21.

이 구절에서 에스겔의 아내와 성소는 둘 다 “네 눈의 기쁨”으로 동일시된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그 포위가 열여덟 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밝히는 반면, 케스티우스와 티투스의 포위는 주후 66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케스티우스의 첫 번째 포위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엄밀히 계산하면 삼 년 반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포괄적 계산법”을 적용하면 사 년이다. 이 두 계산법이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케스티우스로부터 티투스까지의 삼 년 반과 또한 사 년을 모두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의 두 멸망 속에서 우리는 일요일 법에 대한 두 증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역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그때 라오디게아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되는—에 적용되어야 한다.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의 시작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표지된다. 그녀가 죽었을 때, 에스겔은 공개적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표징이었기 때문이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의 4년 기간의 시작은 멸망의 가증한 것의 표징으로 표시되었으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하여야 할 표징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마태복음 24:15, 16

서로 분명하게 일치하는 두 포위가 있으며, 두 포위 모두 그 포위의 시작에 하나의 “징조”를 포함하고 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과 그에 대한 자신의 애통하지 않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모든 일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며, 이 일이 이를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24.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표징은 곧 닥쳐올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바벨론 포로 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의 표징은 그 멸망을 피하여 도피하라는 경고였으나, 두 포위 모두 그 시작에 하나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임박한 일요일 법 이전에 예언적 포위가 있을 것이며,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완전히 지나침을 당하였음을 상징하는 반면,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의 상징이며, 포위의 시작에서 높이 들리는 기치의 상징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위의 시작에서 십사만 사천의 기치이며, 시작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표징은 로마의 “표징”이다. 한 표징은 내부적 경고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경고를 말한다. 분명히 서기 66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있었으나, 그 경고의 표징은 로마였다. 바벨론 멸망에서의 표징은 에스겔의 아내였다. 로마는 짐승의 표를 받는 부류이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표징이다.

두 종결 기간

첫 번째 포위는 십팔 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두 번째 포위는 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두 포위는 모두 마지막 날들에 그 “보다 직접적인” 성취를 발견하며, 또한 이 두 포위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기록된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다섯 달의 시작에는, 서른여덟이라는 수와 연관되어 있는 사 년간의 포위로 절정에 이르는 서른여덟 해의 기간을 표지하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슬람의 일어남을 밝혀 주었다. 그 사 년간의 포위는, (다섯 달) 곧 백오십 년이 끝나고 삼백구십일 년 십오 일이 시작되었을 때 시작된 역사 속에서 그 대응되는 짝을 발견한다. 그것은 1449년 7월 27일에 시작되었고, 사 년 후 이슬람은 콘스탄티노플을 상대로 오십오 일간의 포위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1453년 5월 29일에 종결되었다.

1449년 7월 27일에 시작된 시간 예언이 1844년 8월 11일에 끝났을 때,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운동의 사 년은 1333년부터 1337년까지의 사 년 포위와, 또한 1449년부터 1453년까지의 사 년 기간과 서로 일치하였다. 동일한 예언적 계열에 직접 속한 이 세 증인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운동이 셋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상징적 사 년 기간을 나타낸다. 이 세 증인은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의 사 년 포위를 예표한다. 그 사 년 기간은 또한 66년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포위들로도 예증된다.

66년에 케스티우스에 의해 시작된 4년간의 포위와, 이어서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그 종결이 이루어진 것은, 그 4년의 기간에 대하여 알파 상징과 오메가 상징을 형성한다. 동일한 그 기간은 또한 3년 반으로도 표상되며, 이는 다시 교황권 로마가 성소를 짓밟았던 예언적 3년 반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전 밖의 들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2, 3

그들이 칼날에 엮드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리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내가 케스티우스의 알파 상징으로부터 티투스의 오메가 상징에 이르기까지 표상된 기간에 대하여 "포함 계산"과 "배제 계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 안에 두 가지 시간 적용이 표상되어 있음을 밝혀 준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파니움)를 방문하신 때와 변화산으로 가신 여행 사이의 시간을 고찰했을 때(이미 여러 글 전에) 이 성경적 원칙을 다룬 바 있다. 두 명의 성경 기자는 한 사람은 옛새를, 다른 한 사람은 여드레를 기록한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17: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 9:2.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9:28.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세에 대하여 "더 직접적인" 적용을 가지며, 그 멸망은 바벨론과 로마로 표상된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은 서로 일치하지만, 진리를 더욱 증폭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필수적인 예언적 특성들을 제공한다. 로마에 의한 포위(66년부터 70년까지)는 사 년이었으며, 또한 삼 년 반을 표상한다. 이 삼 년 반은 이교주의와 교황권주의 둘 다에 의해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일과 연결된다. 교황권주의에 의한 짓밟힘은, 로마의 포위에서 문자적인 삼 년 반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상징적인 삼 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그 네 해의 포위 또한 이슬람의 들어 올려짐, 그리고 그 후 첫째와 둘째,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의 운동의 들어 올려짐을 식별하는 예언적 선과 관련된 네 해의 기간들과도 연결된다. 케스티우스에서 티투스에 이르는 역사는 교황 로마의 바퀴와도, 또한 이슬람의 바퀴와도 교차한다. 로마의 바퀴와 케스티우스와 티투스의 삼 년 반은 교황 로마의 상징적인 삼 년 반과 교차하며, 이로써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라는 두 실체를 식별한다. 이슬람의 바퀴는 동일한 역사에 의해 네 해로 이해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역사 속 로마의 바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이슬람의 바퀴에 종속된 둘째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재림교이다. 삼 년 반의 기간은 로마를 그 두 국면 모두에서 나타내며, 네 해의 기간은 이슬람과 재림교를 나타낸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예언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슬람과 재림교도 likewise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위를 고찰할 때 열여덟 달의 포위라는 예증 속에서 두 가지 시간 이해가 보여야 함을 요구한다. 로마가 가져온 포위에 나타난 두 가지 시간의 표상은, 예언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포위에도 두 가지 시간의 표상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느부갓네살의 열여덟 달 포위 역시 일 년 반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열여덟 달은 일 년 반이며, 일 년 반은 1.5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의 포위는 열여덟 달이면서 동시에 1.5년이였다.

열여덟 달은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어 있던 세력을 가리키며, 1.5년은 이슬람을 가리킨다. 열여덟 달을 식별해 내는 예언적 계산의 바퀴는 바벨론을 식별하며, 또 다른 예언적 계산의 바퀴는 이슬람을 식별한다. 우리가 아직 이슬람과 관련하여 1.5년의 적용에 이르게 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로마와 연결된 예언적 바퀴와 관련된, 곧 로마가 가져온 멸망(이교적 로마와 교황권적 로마 모두) 안에 있는 이 두 시간 계산과, 이슬람의 예언적 바퀴와 관련된 다른 계산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예루살렘의 알파와 오메가 멸망 둘 다에서 발견된다.

게스티우스와 티투스과 함께한 예루살렘의 사 년 포위는, 이슬람의 들어 올려짐을 상징하는 사 년의 포위로 마무리된 삼십팔 년 기간으로 시작된 하나의 예언적 계보의 종결을 나타내며, 바로 그 동일한 계보 안에 있는 마지막 사 년 기간은 십사만 사천의 기의 들어 올려짐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